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관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교회 설립 37주년 행사 계획 확정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 운동 전개키로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당회는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기념 행사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1. 감사예배
일시 : 9월 2일 낮 예배시
장소 : 본당
2. 축하음악예배
일시 : 9월 2일 저녁 7시
장소 : 본당
주관 : 할렐루야 찬양대
3. 일본어 예배 개설
일시 : 9월 2일 오전 9시
장소 : 선교관 501호
설교 : 시미즈 요시오 목사
4. 총현유아원 개원 예배
일시 : 9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베들레헴홀
5. 한국 교회 고등부친양대 찬양대회 개최
일시 : 10월 9일
장소 : 본당
6. 장애자를 위한 바자회
일시 : 10월 19일, 20일
장소 : 뱃바게광장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참가방법 :
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 기증

나. 손수 제조 판매하는 우수 상품 판매
다. 농산물 직매
라. 향토의 맛 풍기는 음식 판매

마. 상품권 구입 및 전도용으로도 구입

바. 14개 교구별 상점 운영

7. 21세기를 향한 속(續)사도행전 운동

우리 교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90아시아선교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새벽 5시에, 본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속(續)사도행전 운동”이라는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 운동”은 홍해작전에서 승리를 이룬 우리 자신의 영적 재무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현의 성도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개최되는 '90아시아선교대회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선교 의식을 고취시키며,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기도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도 운동의 참모 본부는 “세계 선교는 우리가”를 주제로 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제성구로 정하였다.

이 기도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총현의 성도들은 민박과 통역 및

기타 자원 봉사를 하게 되며,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는 교회 미화 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 운동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과 교회

- 1) 가정, 친척, 이웃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 2)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 3) 총현교회와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진력하게 하옵소서.

나. 국가와 세계

- 1) 우리나라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 3)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4) '90아시아선교대회를 통하여 세계 교회가 기도 운동의 불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 5) 94년 6월에 열리는 “21세기를 향한 세계 복음화 제2차 지구대회”를 위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지원해야겠다.

●기도제목

1. 더위에 건강하고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도록
2. 순조로운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하여
3. 말씀과 기도에 깨어 살도록
4. 선교에 동참할 동역자의 확보를 위해

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칼라치를 제외한 파키스탄내의 한인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선우형식 선교사가 한인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5월 24일에는 팩시밀리를 설치하여 전화로도 사용하고 있다. 번호는 001-92-71-85135이다.

모슬렘 국가 가운데 문화가 개방된 나라는 파키스탄뿐이다. 이런 파키스탄에도 성령의 놀라운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의료선교사를 파송한 파키스탄에서 선우형식 선교사 등이 소식을 전해왔다.

의료선교사 일동은 97%가 모슬렘인인 파키스탄에서 아직도 미숙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으며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

건축기술자가 병원 건물을 조사하는 등 병원 개원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선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실시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몇 주 전 미국에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마중 나온 형제들 중 한 분이 총현교회 사랑을 하는 바람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업차 들렀다가 주일이 되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세 번 들렀는데 처음엔 예배당의 웅장함과 미려함에 놀랐고, 두번째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고 질서가 있는지 압도된 분위기에 놀랐고, 세번째는 은혜로운 말씀에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빨간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들의 친절하고 예의 있는 안내에 과연 세계적인 교회로구나 하며 감탄했다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저는 오히려 민망스러워 과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었습니다.

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었다고까지 했지만, 많은 형제들이 상습 지각생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장 긴급히, 가장 먼저, 가장 정성껏 드려야 할 예배가 정말 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의구심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총현은 우리만의 총현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모범을 요구하고 있음을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문난 교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칭찬을 채찍으로 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8. 5 이 중 윤 목사

장학금 1억원 기증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30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총현 교

회 장학금” 1억원을 기증하였다.

이 장학금은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의 자녀나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교회는 총회 선교대회와 밀알선교단의 하기 수양회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총현교회 절제운동본부 본격 가동

제3차 홍해작전의 정신을 계승하여 설치된 “총현교회 절제운동본부”의 회칙이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7월 당회에서 승인받았다.

이 회칙에는 총현교회 절제운동본부는 “성경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범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절제 운동을 확산 장려”하는 것이 그 목적으

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절제 운동본부는 앞으로 권사회와 스테반회, 교구, 전도회와 직장 선교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절제 생활의 규범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 상담, 훈련, 홍보 및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하여 교회·가정·사회·청소년의 절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추수할 일꾼 기다리는 파키스탄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선한목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요10:1~6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양과 목자의 관계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을 통하여 드나드는 자가 아니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10:7)

그러므로 오늘날 절도며 강도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들어온,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끌어 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 목자가 부르는 대로 문지기가 그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이라고 했는데 누가 앞서 간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떼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갑니다.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가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하셨습니다(요10:4, 5). 이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10:11)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합법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흘리신 그 보배로운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변에는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혼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혼자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절도요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손해를 주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양들이 있는 우리를 교회 또는 유대교(유대교에 갈려 있는 사람)를 의미하고 문지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다 내어 놓은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자기 양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라고 하였습니다(사40:11).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위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흩어질지라도 우리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의 참 목자(히13:20)요, 목자장(벧전 5:4)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

서 우리들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양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두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부르시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택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에 따라 친히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려 내실 때에 죽은 자가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팥나무 위로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를 전에 면대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부를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세리 마태와 빌립을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좇으라”고 하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야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것은 우리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눈 멀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을 떴고 그가 유대교로부터 끌어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악마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물질주의로부터, 지식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무신론사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었던 옛날의 습관과 가치관으로부터 끌려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양이라면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모든 생각과 행실들을 다 내어 버리고 선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들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마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택한 자를 불러 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 뜬 소경과 이것을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유대교에서도 소외되고 출교를 당하는데도 소경이었던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나니”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해주시며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2. 목자장 그리스도

지금 우리들을 양으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양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요10:14). 이름만 아니라 그 양의 아픈 곳, 연약함,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이 곤고함에 있는 것도 아시며,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의 형편과 처지를, 그의 생각과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

■ 탐방 - 차량관리부

주차질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주일 우리 교회를 오고가는 수많은 차량들을 질서정연하게 인도하는 차량관리부원들은 요즘과 같은 띄약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있다.

새 성전으로 이사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교회 출입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조직된 차량관리부는 초창기에는 차량봉사부로 불리다가 89년부터 명칭을 변경, 봉사해오고 있다.

현재 약 75명의 부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차량관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관리부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호응을 해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곳은 날이나 흐린 날도 변함없이 바깥에서 봉사해야 되기에 고된 봉사이지만, 차량들이 질서 있게 주차되고 출발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을 볼 때 충현교회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크신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주일 하루 약 2,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 많은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관리부에

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충현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관리요원의 안내를 따라주시시오.

둘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승·하차시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서 혼잡을 피해주시시오.

셋째, 정문 앞에서는 질서를 위하여 승·하차를 삼가해주시고 아울러 택시를 이용하시는 교우 여러분도 교회 문앞에서 승·하차를 피해주시시오.

넷째, 충현교회에 출석하시는 장애인들이 탑승한 차량은 교회 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기어를 중립에 놓으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시고 점멸등을 정확히 사용해서 차량 안내를 도와주시시오.

위의 사항들을 착실히 지킨다면 질서정연한 모습이 되는 더욱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이다.

수고하시는 차량 봉사 요원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한 마디 건네는 충현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란다.

■ 하기수양회 참가문

가정 천국 이루고자 결심

임 경 순 집사(장년 1부 교사)

작년에 이어 제2회를 맞은 장년1부 여름 수양회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로 정해지자 올해에는 더 알찬 수양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마음이 바빠졌다. 교사들은 준비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며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를 정하고 평생에 한 번 뿐인 수양회로 알고 참여하자고 다짐했다. 우리 여자 6반은 모두 10명인데 신청자수는 4명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참여하길 기도했다. 특별히 믿음이 적은 남편들의 만류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 것인가 걱정하는 반원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권면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서로 같이 가자거나, 기대는 하지 말라거나, 집에 가보아야 안다거나 하면서 헤어졌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이해시켜서 하루밤을 기도원에서 잘 것인가? 남편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면서 아이들만 데리고 와야 하는 아내들의 심정을 예수님은 아시리라. 우리 반에서 사정상 못가겠다는 분은 두 분이였다. 그런데 그들 대신 기도원에 가겠다고 연락된 전도회 회원 한 분이 계셨고 15일 날에 타고 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다.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원예를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16일 아침부터 장대비가 내리

고 온종일 날씨가 고르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출발 준비를 하였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비가 멈추고 날씨가 개이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올 수 없다고 하던 우리 반원 한 사람이 반대하시던 자기 남편과 함께 나타났다. 우리 반원은 모두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떤 분은 출발하기 5분 전에 남편이 결재 전화를 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새벽부터 소매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일을 마치고 두 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다. 우리 반원 10명이 모두 채워진 것이다.

기도원에 도착한 우리는 숙소에 입실하여 서로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환경은 달랐지만 기도의 제목은 비슷했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남편의 믿음을 위해,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받기를 위해 기도했다. 16일 밤의 캠프 파이어와 불꽃놀이 시간은 아이들을 환상의 나라에 빠져들게 했다. 천사들이 어디선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멋진 밤이었다.

이조웅 강도사님은 부흥회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

씀해주셨다. 입에 발린 사랑을 해온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개와 결심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시간은 소찬이라도 즐겁기만 하였다. 반별로 줄을 지어 성구를 암송하고 아이들도 줄을 지어 배식을 받으며 즐거워하였다. 부감 집사님은 90도로 허리굽혀 어린이들의 식판 시중을 들어주시고 처장님은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발해 토의시간에 우리는 "이웃 사랑, 가정 사랑, 교회 사랑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가장 쉬운 일, 작은 일부터 해보기로 하였다. 우리의 실천사항은 집에 두고온 남편을 갑절로 사랑하겠다는 것과 자녀에게 인색했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들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위에 터를 닦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소망의 지붕을 덮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자고 결심하였다.

김주아 전도사님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천재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오후 시간에 전인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웠은 어려서부터 주어진 책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보면, 언젠가 훗날에 하나님의 뜻대로(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문제이다. 어린 시절, 학생 시절 배움 중에 있는 지금이 중요하다. 교회의 성도로서, 전도회 회원으로, 부서의 봉사자로, 직분자로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성실한 목자였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윗의 이같은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자리로 옮기신 것이다.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분이 되는가? 나는 모든 생활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나중에 잘하겠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에 중요하고 현재가 소중하다. 오늘이 문제이다.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듯이 내가 현재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어야 한다. 자, 현재의 나는 어떠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호 세기들은 김학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김 성 윤 목사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걸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 그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되었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왕에 되기에 적합치 않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다. 전장한 형님들에 비하면 외소하고 빈약한 막내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일곱 형을 둔 막내에게 누가 그렇게 기대를 걸겠는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아버지 이제 조차도 다윗

을 무시하였다. 막내란 가정에서 사랑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과의 차이점이 있다. 아버지 이제와 이제의 가족들은 다윗이 장차 그렇게 큰 인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형들을 훌륭한 인물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큰 그릇이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세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행13:22). 하나님은 '언제, 다윗이 무엇을 할 때에 그를 유심히 보셨을까? 그가 양들을 칠 때였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한 때는 시기적으로 다윗이 양치기 할 때이며(삼상3:14),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제78:70)는 말씀을 볼 때에도 다윗에 양치기 할 때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 것이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곰이 양을 해치려 하면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지켰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사용해서 돌팔매질을 한 것은 후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

은혜와 섭리 깨달은 기회 소망부·직장전도교육부 여름수양회 끝나

직장전도교육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14회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이번 수양회는 민족의 산업 사회에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광석 목사를 모시고, 첫째날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둘째날은 “말세의 일곱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부흥회를 가졌다.

또한 “크리스찬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송태근 목사와 구명신 전도사가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영화 “벤허”를 상영하여 은혜를 받는가 하면, 캠프 파이어를 통해 주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기도 하였고, 산돌올림픽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소망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갈릴리움에서 제15회 여름 수양회를 개최했다.

말씀도 배우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한 소망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힘써 여호와의 일을 하라”였고 강사로

는 이종운 위임목사와 김학진 목사와 전승훈 집사가 수고했다.

이종운 위임목사가 개회예배 설교를 하고, 김학진 목사는 첫째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둘째날 “힘써 여호와의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한편 전승훈 집사의 인도로 레크레이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성경연구원 90년도 제2학기 개강

우리 교회 성경연구원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에 개강한다.

이번 학기로 제33기를 맞이하는 교사 양성부는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소석관 301호에서 주일반(주일 오후 1시~3시)과 화요일반(화요일 저녁 7시~9시)로 나누어 운영된다.

또 주간성경공부는 매주 월, 화, 수, 목요일에 열린다. 주간성경

공부에서 10학점을 이수한 교인에게는 성경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구역장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90년도 제2학기 성경연구원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원서접수 : 8월 6일~31일
- 등록금 : 한 과목당 2,000원 (단, 교재대 별도)
- 최선의 삶 10,000원
- 크로스웨이 18,000원)
- 접수처 : 성경연구원(선교관 102호)

●주간성경공부

요 일	시 간	강 의	강 사
화요일	오전 10:00~11:30	크로스웨이 (2-2)	이종운강도사
	저녁 7:00~8:30	갈라디아서	송태근목사
수요일	오전 10:00~11:30	에스더	윤용규목사
	오전 10:00~11:30	아모스(II)	김학진목사
목요일	오전 10:00~11:30	호세아	최인근목사
	오전 2:00~3:30	최선의 삶	김주아전도사
금요일	저녁 7:00~8:30	다모데전서	김창수목사
	새벽 6:10~6:50	아담반	이종운위임목사

●교사양성부

주일반	화요일	1 교 시	2 교 시
9/2	9/4	교사의 조건	윤용규 교회 부흥과 전도
9/9	9/11	영적 성장의 비결	송태근 영적 성장의 비결
9/16	9/18	예배와 교회 음악	최시원 예배와 교회 음악
9/23	9/25	장로교회사	김광석 장로교회사
9/30	10/9	신구약 개설	성주진 신구약 개설
10/7	10/16	율법과 복음	김해규 율법과 복음
10/14	10/23	교회학교 운영의 원리와 실제	정연희 교회학교 운영의 원리와 실제
10/21	10/30	성경 공부 방법과 인도	이종운 성경 공부 방법과 인도
10/28	11/6	발달심리	김연이 발달심리
11/4	11/13	상당자로서의 교사	정소영 상당자로서의 교사
11/11	11/20	교 회 문	김창수 교 회 문
11/18		분반 운영 실제	정기봉 분반 운영 실제

중등부 바자회 열어 수익금은 사랑의 집 건축헌금으로

중등부에서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 기간 중에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25일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기증한 운동기구와 의류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고 옥수수·수박 등의 과일들도 판매되었다.

이 바자회의 수익금 50여만 원

은 사랑의 집 건축 헌금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바자회는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바자회 때에는 팔씨름, 줄다리기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게임들도 마련되어서 학생들간의 친목은 물론 선생님과 학생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20일까지 벧바게광장 이용해야

우리 교회는 8월 6일부터 2주 동안 지하주차장의 바닥 도장공사를 한다. 따라서 20일까지 이 주차장이 폐쇄되는데, 주중에 교회를 찾는 차량은 벧바게광장을 이용해야 한다.

교회 - 기도원간 버스 운행시간 변경

교회 - 기도원간에 운행하던 버스의 운행 시간을 변경하였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기도원에서는 새벽 6시에 교회로 출발한다.

성도들은 교회 - 기도원간 정기 버스를 많이 이용하여 은혜 넘치는 기도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 핸드벨 콰이어 세계대회 참가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충현 핸드벨 콰이어는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7월 29일 찬양예배 때 성도들에게 선보였다.

약 2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핸드벨 콰이어는 이미리 선생 지도 하에 2년여 동안 교회 대내외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종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여왔다.

특히 이번 창단 2주년 기념 행사에는 일본 센다이 핸드벨 콰이어가 협주를 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충현 핸드벨 콰이어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인천 송도호텔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 참여하였다.

경비부 신설키로, 경비부원 모집

당회는 교회 경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부를 신설하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 가운데 한 명을 부장으로 임명하여 경비 업무를 총괄토록 결정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갈 경비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자 격 : 교회 직분자 및 세례 교인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당회장 추천서 1통 (충현교회 교인은 교구 담당목사 추천서)
- 제출기한 : 8월 10일까지
- 제 출 처 : 사무국 총무과(소석관 102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2 과 은혜의 수단(방편)

성경 : 엡 2 : 8, 9

요절 :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 : 42)

찬송 : 404, 410

제 88 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규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설 명

은혜의 수단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수단으로서 3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며 성도는 믿음과 회개로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은 선택된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질 문

1.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말해 보시오. (뱃전 3 : 21).
2.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말해 보시오(고전 11 : 26).
3.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딤후 3 : 15)?